

# “지도자의 길이 멀고 험해도...”

##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 입제 현장

간화선(禪話禪), 화두(話頭)를 간(簡)해 의심(疑)어 리를 타파하고 본래 성품(本性)인 자성(自性)을 바로 보는 선법, 단박 깨침으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매력적인 공부법은 한국불교사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 ‘간화선의 위기’라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계종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해 왔지만 난제는 간화선 지도자 확보였다. 옛 선사들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 간화선은 스승의 올바른 지도 아래에서만 활짝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지도할 인력 양성과정이 최초로 열렸다.

8월 14일 충주 석종사에서 열린 입제식은 뜨거운 열기 그 자체였다. 작열하는 태양이 입제식 외부를 달궈주었다. 내부는 비구 12명, 비구니 63명, 우바새 28명, 우바이 13명 등 총 116명의 동참대중이 뿔뿔이 내는 학구열로 후끈거렸다.

참가자 가운데는 불광사 참선지도반을 운영하는 무각, 양산 내원사 주지 승해, 정도 운문사 문수선원 선감 대훈 스님과 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강사, 이병수 경성대 수학과 교수, 황수경 동국대 선학과 강사, 진정순 국·국어교과서 편찬위원 등이 눈에 띈다.

변희욱씨는 간화선 연구 논문이 있으며, 황수경씨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고, 이병수 교수는 ‘불교와 퍼지수학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참가를 신청한 것

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재가자 모두 간화선에 대한 상당한 이론과 실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간화선을 대중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 초발심으로 되돌아갔다.

입제식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이제 이 시대 대중의 요구와 종단의 필요성에 맞춰 간화선 포교 인력을 양성해 참선 수행을 생활화하고 대중화해 마침내 세계에도 널리 알려나갈 때가 됐다”고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자들은 “간화선이 최상승 수행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에 충실히 임하고 수행을 정진하겠습니다”라는 서원문을 읽으며 부처님 전에 서약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1주일 동안 강의와 단답·토론을 통해 간화선을 배우는 데 필요한 이론 공부를 한다. 올 11월 중 1주일간의 실참 과정을 한번 더 거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수 이후 이들에 대한 종단적 활용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사좌회(공동대표 혜국, 함주, 현산)는 8월 13일 예산 수덕사에서 회의를 열고 간화선을 지도하는 재가자에게 ‘선(禪)포교사’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가자에게 어떠한 명칭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결과이다. 그러나 명칭을 부여하는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처기로 했다.

충주 석종사/글=남동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 출가자 75명·재가자 41명 ‘면학’ ‘학문과의 연계’ 위해 학자들도 참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참석자가 부채를 부쳐가며 강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간화선이 최상승 수행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에 충실히 임하고 수행을 정진하겠습니다”라는 서원문을 읽으며 부처님 전에 서약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1주일 동안 강의와 단답·토론을 통해 간화선을 배우는 데 필요한 이론 공부를 한다. 올 11월 중 1주일간의 실참 과정을 한번 더 거치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수 이후 이들에 대한 종단적 활용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사좌회(공동대표 혜국, 함주, 현산)는 8월 13일 예산 수덕사에서 회의를 열고 간화선을 지도하는 재가자에게 ‘선(禪)포교사’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가자에게 어떠한 명칭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결과이다. 그러나 명칭을 부여하는 절차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처기로 했다.

충주 석종사/글=남동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참가자들이 부처님 전에 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올 11월 진행될 실참과정을 거친 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선포교사로 나서게 된다.

### interview 교수사 고우 스님

#### “선의 생활화·사회화 필요”



“간화선은 그동안 선방 위주로 진행돼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간화선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계종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 교수사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은 ‘간화선 대중화’라는 단어로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를 설명했다. 고우 스님은 ‘깨닫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간화선을 지도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원칙은 깨달은 사람이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간화선 대중화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도 달라졌습니다. 깨닫지 않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수행은 ‘생활화’라고 한다면 남을 지도하는 것은 ‘사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우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감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화는 시대의 추세”이며 “대중화를 위해 부처님이 발견한 존재의 이유를 철저히 알고 출발할 때”라고 시대적 당위성을 부여했다.

### 이색 참가자들

#### 일상언어로 간화선 ‘번역’ 할 계획



‘참선일기’ 저자 김홍근씨

“진리가 있다면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지 실험해 보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참선일기》로 유명한 김홍근 성전문화재단 고전이카데미 연구실장(금회·49)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실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여 년 동안 책으로 불교 공부한 것보다 2년 동안 실참에서 느낀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홍근 연구실장은 간화선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으로 ‘언어’를 지목했다. 따라서 간화선을 ‘외국어’로 간주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체험도 붓다뉴스 커뮤니티 ‘김홍근의 참선일기’(http://cafe.buddhapia.com/community/khg)에서 고스란히 공개할 예정이다.

#### 남은 삶 주력할 수행으로 선택



진주하 이종복 부부

“진리를 찾기 위해 도반으로 같이 공부해 보고자 참여했습니다.”

이번 양성과정에 부부가 동참했다. 주인공은 남편인 진주하(환성·58)씨와 부인 이종복(연여·54)씨.

진주하씨는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불교 공부를 시작한 뒤 “남은 삶은 여기에 주력하겠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국제포교사로 서울 봉은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찰안내를 하고 있는 이종복씨는 “한국불교의 진수인 간화선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

남편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위에 간화선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부인은 “간화선을 실생활에 접목시키는데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계종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양성과정’ 입제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앞줄 왼쪽), 교수사 고우(앞줄 가운데),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앞줄 오른쪽) 스님 등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유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판세움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 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받지

달마카드  
 ■ 소재: pp금장 달마도 부직카드  
 ■ 규격: 50mm x 75mm  
 ※ 50장 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3호-그림:30x40cm 액자:40x50cm	달마 6호-그림:35x45cm 액자:47x64cm	달마 8호-그림:35x68cm 액자:47x88cm	달마 10호-그림:45x75cm 액자:58x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